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說說 끊는 민주 컷오프 명단설

### 하위 20% 12명 적힌 정보지 온라인 확산... 지도부 "사실 아니다" 전략공천 루머까지 혼란 가중... 광주 북갑 전략공천 대상서 멀어져

4·15 총선 공천 심사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각종 설이 확산되면서 설설 끊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평가 '하위 20% 컷 오프'와 전략공천 대상 지역구 등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일부 언론 보도 등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하위 20% 컷-오프' 탈락 명단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보지에는 초선부터 중진까지 12명의 의원 명단이 적혔고 지역구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부산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했다.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문(친 문재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들은 1~2명에 불과했다.

당장, 명단에 포함된 의원실은 발각 뒤 집했지만 지라시라는 점에서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어려워 냉기습만 앓고 있는 상황이다. 당 내외에서는 "정보지라고는 하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문(비 문재인) 의원들 확산의 전주곡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일부 중진 의원들은 합지 출마 등 지역구 이동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팔짝 뛰고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하위 20% 명단은) 받았지만 개봉을 안했다"며 "(명단은) 밀봉된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에서 하위 20%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정보지에 담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문이 커지면서 하위 20% 명단 공개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위 20%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공식 확정한다.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은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경선에서 감점이 부여돼 공천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하지만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공천을 받는다 해도 본선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전략공천을 놓고도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전략공천 지역구를 놓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설이 일부 언론 보도와 맞물리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과 지역위원장 공식 지역 15곳을 1차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광주·전남지역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전남 지역구 2~3곳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거의 없다. 현재 순천시가 분구된다면 소병철 전 고검장을 전략공천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구에 대해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지만 투입할 마땅한 카드 찾기가 쉽지 않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내외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각종 전략공천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언론도 전략공천 지역구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광주 북구 갑의 경우 오히려 전략공천 대상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기류고, 목표와 고충·보상·강진·장흥도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주·전남 일부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됐다는 언론 보도는 완전 오보"라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위에서 아직 논의도 되지 않았고 최고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5일까지 총선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를, 7~10일에는 면접 심사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어서 광주·전남 전략공천 지역구도 이 즈음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한국당·새보수당 '양당협의체' 논의 시작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당 대 당 통합 협의체가 21일부터 가동되면서 뼈격 대던 보수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가동됐던 불발 창구가 공식 창구로 단일화되면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양당 협의체 구성은 새보수당의 요구를 한국당이 전날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혁신통합추진

위원회(혁통위)의 보수통합 가치 및 방향 논의,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신설 합당 로드맵 논의 등 양 갈래로 나뉘어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통합 논의를 주도해온 혁통위의 역할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박형준 혁통위원장도 이날 제주도를 찾아 원희룡 지사에게 "설 전에 통합 신당 참여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외연 확장에 발 벗고 나섰다. 또한 한국당은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혁통위에 참여하는 김상훈·이양수 의원 중 한 명을 양당 협의체에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총선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통합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이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양당 내부에서는 '2월 초-중순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이 '신당 밀그림'을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 총선 라운지

### 서정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정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국민소환제를 실현하기 위한 1호 공약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내세웠다"면서 "국회의원도 리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국민이 4년에 한 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나면 달리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의 정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외에도 국민주권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 2의, 제 3의 정치 개혁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삼석 "국민 섬김의 정치 펼치겠다"

더불어민주당 고삼석 광주 서구를 예비 후보는 21일 서구 마제사거리에서 출근인사를 하면서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행보를 본격화 했다.

고 후보는 "미래와 희망의 새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축적한 정치와 행정 경험과 리더십을 발휘해 섬김의 정치를 펼치겠다"면서 "광주 디지털 신경계 지도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미래전략산업의 큰 그림으로 중앙과의 폭넓은 교류와 글로벌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준호 "솔로몬파크 부지 5·18 암매장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5·18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법무부의 솔로몬파크 조성사업이 지체되더라도 공사예정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암매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연고자 묘지 인근에 있는 뒷밭 2800여㎡를 대상으로 유골 발굴 조사를 한다"며 "옛 광주교도소는 당시 3공수여단이 주둔하면서 북광주나들목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을 학살해 암매장했던 사실이 확인된 곳이다"고 설명했다.



### 민형배 "전통시장 2단계 현대화 추진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설을 앞두고 지역비야오일시장을 찾았다.

민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간으로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문화자원이다"며 "상인들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야시장은 1단계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했고 주민참여 플랫폼도 운영되고 있지만, 상설시장이 아니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2단계 현대화사업과 함께 비야마걸리를 활용한 콘텐츠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진 "벤처유니콘 기업 광산구에 설립"

더불어민주당 김성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30년 동안 경제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광산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인공지능 산업 기반, 미래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산업 등 미래 혁신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청년의 아이디어가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청년 창업투자 육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4차산업혁명 분야 유망기업에 연구개발 및 컨설팅 등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과 자본시장의 세제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우기종 "경제정책 전문가로 총선서 큰 역할"

더불어민주당 우기종 목포 국회의원의 예비후보가 민주당 목포시 동맹의회장단(이하 동맹의회장단) 지지 선언을 계기로 세뭍이에 나섰다.

우 예비후보는 21일 동맹의회장단 지지 선언을 통해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불러올 수 있도록 경선과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맹의회회장은 지지선언문에서 "목포는 경제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앞장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통합할 수 있다"며 '기업투자유치 전문가', '예산 전문가', '경제정책 전문가'로서 후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 나주·화순 군의원 등 155명 김병원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원 나주·화순 국회의원의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계기로 세뭍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등 화순군의원 8명이 김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나주시의회 전·현직 의장단과 원로, 전직 농협조합장, 문화예술계 인사 등 155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나주지역 지지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김 후보는 정·재계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역량을 갖춘 최고의 책임자"라며 "대한민국 정정농업수도와 에너지수도라는 비전을 실현 시킬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 김화진 "고흥·보성·장흥·강진을 관광 특구로"

바른미래당 김화진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는 21일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대한민국 농업 문화관광 대표 특구로 만들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사명은 준비된 사람의 능력을 적용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하면서 새로운 정치,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해서는 상대방도 기용할 수 있는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역을 살리는 길은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라며 ▲항공우주센터와 스마트팜 벨리 문화관광권(고흥) ▲녹차·소리 문화 관광권(보성) ▲탐진강 유역 스포츠 문화 관광권(장흥)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대학원     | 과정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학과(M.Div.)        | 00                 |   |
|         |    | 신학과(Ph.D.)         | 0                  |   |
| 일반대학원   | 박사 | 목회학과(D.Min.)       | 0                  |   |
|         |    | 유아교육학과(D.Ed.)      | 0                  |   |
|         |    | 사회복지학과(D.S.W.)     | 0                  |   |
|         |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0                  |   |
|         |    | 석박사통합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0 |
|         |    | 석사                 | 신학과(Th.M.)         | 0 |
| 상담치료대학원 | 석사 | 유아교육학과(M.Ed.)      | 0                  |   |
|         |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0                  |   |
|         |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0                  |   |
|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 | 코칭심리학과(M.Psy.)     | 0                  |   |
|         |    | 평생교육학과(M.Ed.)      | 0                  |   |
| 국제대학원   | 석사 | 한국어교육학과(M.Ed.)     | 0                  |   |
| 음악대학원   | 석사 | 실용음악학과(M.A.)       | 0                  |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  
· 전형일: 2020. 2. 3(월)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회)교(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모집학년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
| 2학년  | 0명(주-야) |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
| 3학년  | 0명(주-야) |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  
· 전형일: 2020. 2. 3(월)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